

# AJOUINSIGHT.

봄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6(4349) 여름호 통권16호



P.04 07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P.08 11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inspiring  
summer



4



내 인생의 여름여행  
강명구  
아직도 명징한 그 여름의 기억  
소병천  
나를 영원한 학생이게 한 여정  
Magali Plattet  
몽골에서 만난 또 다른 나  
최인아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싶은가

worldwide ajou  
summer program



8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의 여름  
글로벌 인턴십  
AFTER YOU 프로그램

42 paran  
challe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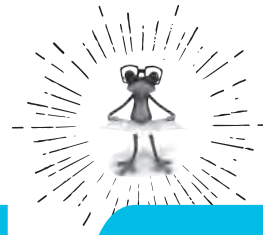


42



파란학기제 - 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  
1st 참가팀 중간Report

creative



16



과짜 같은 진짜  
Boston <메스 챌린지> 참가  
이중현 기계 11

a word of editors

"안다는 것이 얼마나 표피적인가? 머리만의 공부로는 몸의 열정을 결코 이길 수 없다"며, 이듬년 나라에서 긴 유학의 결과들을 '한갓 휴지'로 만들었다는 원로 교수님의 여름 이야기<sup>1)</sup>가 있다.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남들이 가르쳐 준 그들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 진단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과 '명패리기'를 위한 젊은 전자공학 전공 교수의 독서 권고 처방<sup>2)</sup>이 있다. 화답하듯 "남의 말에 대한 '집중이 있는 경청'과 '체대로 된 질문'이 미국의 힘이자, 사회에 지혜조차 유행을 타듯 보인다. 그래도 이런 아날로그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정리정돈'의 힘을 되새기게 된다. 막연한 단순화는 일종의 도피라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로. • 복잡한 세상, 예측 못할 미래, 어려운 결정의 시대에 정리

the age of  
A.I



17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알파고 vs 이세돌,  
세기의 대결이 남긴 것  
감동근 전자공학과 교수

alumni  
message



18



해외 동문 메시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최승겸 동문

research news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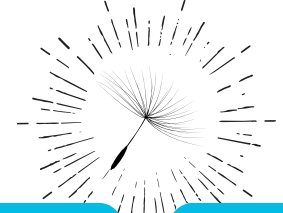


19



연구뉴스  
뉴스  
교직원마이크

lovely  
dandelion



20



기부자 인터뷰  
외동딸 뜻에 따라  
장학금 기부한  
김중권·서호영 부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빨리만 가는 관성을 끝내자, 스스로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 질문자는 한 광고인의 문제의식형 여름여행 권유<sup>17</sup>가 있다. • "알파고 쇼크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였다. '객관식 정답 맞추기'로 명문대 지향 일변의 교육은 정작 모든 혁신의 힘"이라며, '스스로 만들어 낸 가치에서만 희열을 느낄 것'이라는 보스턴 창업올림픽을 다녀온 이주인의 푸르른 독립 선언<sup>18</sup>이 있다. • 스마트폰 콘텐츠에 머리를 박는 시대에 이복고적 소식지에 실리는 값진 메시지들은 무려해보인다. 훌륭한 생각과 경구들이 범람하는 정돈이야말로 창의성의 바탕이자 그 자체라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려면 깊이 가야 하고, 얇게 저머야도 한다. 미숙한 책이지만 특별히 정독을 기대해 마지않는 여름휴다. 책 몇 권 쥐고 생활과 생각의 정리정돈에 나서는 여름 여행을 계획해 보자. ●



# 아직도 명징한 그 여름의 기억

- 네팔에서의 12일 : 유학까지의 학문을 한껏 휴지조각 만들던 '현장'



행정학과 교수 ● 강명구

2005년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12일간 나는 공대, 자연대, 경영대, 사회대를 망라하는 아주대 각 대학 젊은이 10명과 네팔의 아주 낙후된 한 시골 마을에서 하계 자원봉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무려' 혹은 '겨우' 11년 전 이야기이다. 당시만 해도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를 흡수저니 금수저니 하며 암울해하지 않았다. 지금의 격세지감을 생각하자면 이 글은 그래서 '무려' 11년 전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주대 청년들과 함께 뒹굴었던 11박12일의 기억은 너무 또렷하여 이 글은 동시에 '겨우' 11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다. 원고 청탁을 받고 지난 세월의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더니 열 명 젊은이들의 석 자 이름 위로 그들의 얼굴과 행동거지가 또렷하게 오버랩 된다. 여왕 전 내 강의는 물론이고 내 글 한 줄도 접해본 일이 없었던 이 젊은이들이 노후화의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는 나의 메모리칩에 지속적으로 Alt & S를 클릭해대는 연유를 거슬러 올라 추적해보자.

아주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추천으로 하계봉사 지도교수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아마도 수도권 주변의 반(半) 시골로 이사회 교수치고는 삼질 좀 할 줄 안다는 풍문 때문이었으리라고 추측할 따름이다. 아주대는(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주도하여) 2000년대 들어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20킬로 정도 떨어진 버디켈이라는 지명의 낙후 지역에 불가촉(不可觸) 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었다. 내게 부여된 임무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도감독(?) 하는 것과 아주대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3400만원 상당의 교육시설 지원비를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현장 실사방문이었다. 허름하고 소박한 카트만두 공항에 내려 산더미 같이 버스지붕위에 짐을 엮고 시내로 들어서니 비행기 옆 좌석에 동승하였던 영국인 부인의 말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군인인 남편을 따라 이곳에 오랜 기간 거주한 경력의 이방문자는 네팔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불결한(filthy)"을 꼽았다. 내 일기는 이 풍광을 "한국의 60년대 거리풍경이라는 표현도 지나쳤다. 흐트러져 매달려있는 전선과 어찌 보면 인도인 같고 어찌 보면 몽골인 같은 낯설고 검은 사람들, 그리고 정갈함은 약에 쓰러고 해도 찾기 힘든 먼지투성이의 2-3층 건물을 헤집고 수 십 년은 된 낡은 차와 달구지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신호등도 없이 사람 간을 가끔씩 콩알만 하게만 들며 달린다"로 묘사하고 있다.

"머리의 공부  
몸의 열정이길 수 없어"

안다는 것 얼마나  
표파적인가 깨닫게 한  
자원봉사여행  
즐거웠고 사랑한다

매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도착 첫 날부터 걱정반에 후회반이 되었다. 포시롭게 지라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나였지만 잠자리며 냄새며 음식이며 화장실이며 기후며 모두가 마뜩찮았다. 명색이 지도교수니 함부로 드러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더욱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나의 이런 '살짝' 방향은 다음 날 아침부터 슬슬 꼬리를 감추기 시작하였으니 나의 젊은 친구 10명으로부터 나온 무슨 '기운' 같은 것 때문이었다. 어려서 고생하고 자란 경험이 있는 내 세대에 비하자면 2-30년 후세대인 이들 젊은이들은 대체로 풍족히 먹고 자라 낙락할 수도 있다는 나의 은근한 선입견을 이 젊은이들은 다음 날 아침부터 초전박살 내었다. 이들 세대는 우리 세대처럼 길거리에서 최루탄 냄새 맡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훨씬 폭넓은 안목을 지니고 있었고 타자에 대하여 연민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여유와 성숙함을 지녔으며 걱정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이들은 2주간의 하계 봉사를 위해 한 학기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였다. 전일 봉사팀으로 부터 각가지 노하우를 수집하여 갈무리하고 2주간의 봉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틈틈이 네팔어를 익혀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태권도 격파 시범을 보이기 위해 군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 훈련하였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부터 갖가지 학습교재 까지 준비하였으며 심지어는 단체로 티셔츠까지 색깔별로 맞추어 입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공항에서 짐 부피 때문에 애크를 먹은 것 또한 당연지사였다. 그 밖에도 각종 IT 장비들의 준비와 숙지도는 나를 그들의 어리숙한 학생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의 젊은 친구들은 매일 리더를 바꾸어가며 한 사람씩 그날그날의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였고 저녁식사 후 밤이면 둘러 앉아 하루를 평가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사전 점검하였다. 서로 간에 품었던 서운한 혹은 감사한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 또한 가졌음은 물론이다. 명색이 지도교수인 나는 허릴없이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그럴싸한 클로징 멘트를 한마디 던지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아침이면 일어나 기숙학교로 가서 농장을 초롱한 어린이들과 음악에 맞추어 리듬체조로 몸을 풀고 아침 식사 후에는 그날그날 정해진 하루 프로젝트를 소화하였다. 휴벽들로 지은 소박한 교실 내부를 수성 페인트로 칠하는 보수공사도 하였으며 나는 주로 남학생들과 벽들을 날라 시멘트 몰탈로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작년 겨울 동계 봉사팀이 지어 놓

고 간 조그만 간이 화장실의 준공식 장면도 잊기 힘든 풍경이었다. 100여명의 네팔 어린이들이 지역 유지들과 함께 어디서 났는지 손에 손에 꽃목걸이를 들고 우리를 맞았다. 우리가 지금껏 목에 걸어본 가장 아름다운 꽃 목걸이었다. "여러분들은 발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나의 허튼 연설은 이 꽃목걸이에 비하자면 낫 뜨거운 작위(作爲)가 아니고 무엇이었으랴

개인 사정으로서 나의 젊은 벗들보다 며칠 더 일찍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메모하였다가 일기장에 옮겨 적은 감상적 교훈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1)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표피적인가? 머리가 굵어지고 난 이후 군대 3년 빼고는 거개의 시간을 운 좋게도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서 보내며 내 삶을 영위하는 행운을 누렸기에 나를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하여왔다. 네팔에서 보낸 12일간의 동행은 나의 이런 자부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알았던 세대 이상의 세대였다. "너희들 늘어 봤나 나는 젊어 봤다"라는 끈대들의 기득권 논리로 그들은 예단해서는 안 된다. 2)머리로 배운 지식들은 몸을 굴러 체화(體化)시키지 않으면 헛 지식이다. 미국 유학 가서 제3세계 발전문제를 공부하였던 나의 경험은 책상머리와 꼬부랑 글씨 책을 떠나 현장에서 서너 거대한 가난과 난관 앞에서 한갓 휴지조각도 되지 못하였다.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접근한 나의 젊은 벗들이 그래서 자랑스럽다.

떠나기 전날 밤 나의 약간의 감상적 클로징 멘트에 눈시울 붉히며 그들이 내게 보내준 성원의 글과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마친다. "즐거웠다. 그리고 (약간은 오글거리지만) 사랑한다."

추산: '기획론(Planning Theory)'을 강의한 나의 경험을 상기하자면 나의 젊은 벗들이 준비한 한 학기 동안의 '기획론' 실험실습은 내 강의보다 훨씬 더 유효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내 강의를 듣지 않았음에도 (혹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훌륭할 수 있었으리라. '몸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들의 열정은 그 어느 머리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에 이르는 말이다. ●



이른바 '문명'이 닿지 않은 곳의 사람들은 어이나 어른의 대부분이 맑고 깊은 눈빛을 지닌다. 자원봉사 여행 중 우리에게 알려주던 버디켈 아이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나를 영원한 학생이게 한 여정

- 청바지 가게에서 배운 세상



**소병천** ● 국제협력처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행은 '인생의 자양분'이라 한다. 어떤 경우 여행은 기억에 남지도 않는 소모적인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긴 여행이다. 그런 점에서 내게는 해외에서 보낸 몇 년간의 유학생 활이 중요한 여정 중 하나였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있다면 유학생활은 열매를 맺기 위한 뜨거운 한 여름 피막별과도 같았다.

1998년 3월, 국제환경법센터라는 공익 법무법인에서 유급 인턴으로 근무했던 나는 IMF라는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 무급 인턴 자리 대신 일거리를 찾아 나선 내게 선배가 소개해준 일자리가 있었으니 바로 여성 의류 상점의 매니저. 워싱턴 D.C.(Washington, D.C.)의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청바지 가게였다. 아침 9시30분 출근-밤 11시 퇴근, 이라는 근무조건이 걸렸지만 주급 외에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해주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미국에서 가장 싼 일본 라면을 박스째 구입해 민생고를 해결해야 했던 나에게 마다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가게에서 내가 맡은 일은 7~8명 흑인 직원의 근무 시간표를 짜고 직원 및 고객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매장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캐셔까지 담당했던 나는 매일 밤 단 10센트라도 전표와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긴장해야 했다. 특히 매월 초반에는 단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파곤했지만 나름 재고 관리 및 영업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9개의 매장을 소유한 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막판에는 주급이 처음보다 2배 뛰었을 정도였다.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어야 했을 때, 금전적 보상이나 사장으로부터의 인정보다 내게 남은 더 소중한 것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얻은 흑인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왜 흑인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지, 그들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소외된 흑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

정치는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지에 대해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자연스레 향상된 영어실력이었다. 유학 초반 '맥도날드' 발음이 시원치 못해 햄버거 가게도 못 찾은 나는 불과 6개월 만에 학교 강의실에서 1년 동안 배운 영어보다 훨씬 나은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문제는 흑인 영어라는 것이지만 ^^

요즘 학교에서는 파란학기가 화두이다. 파란학기는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교수 지도하에 자기 스스로 주도하여 진행하고 그에 따른 학점도 받는 자기주도형 강의라는 점도 있지만 파란학기가 파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상당수의 파란학기의 강좌가 체험형, 즉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교육으로 체화한다는 점이다. 국제협력처가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인턴십 역시 체험, 그것도 해외체험이라는 값비싼 현장 학습이다. 나는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흔한 말로 바닥에서 구르면서 온몸에 흙을 묻히며 얻는 경험이 산 경험이다. 힘들고 무익한 시간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체험을 통해 단 한 가지라도 얻어낸다면 아마 그것은 강의실에서 얻은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글로벌 배우는 공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결정 할 당시 내가 명목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박사학위' 취득이었지만 그것보다 내가 마음속에서 꼭 성취하고 싶었던 것은 '최강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대강이라도 알아내어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일이었다. 박사학위는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얻어 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내 속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미국 신문을 매일 읽는 것이었다. 처음 결심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1면이라도 다 읽자'라는 것이었다. 신문

미 흑인 사회에서 청바지·햄버거·신문과 씨름한 자양분의 시절

지금도 사람에게 대한 이해, 사회 원동력 배우는 뜨거운 여름으로 이어져

의 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new'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제의 사건이 다시 등장하고 큰 사회적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전 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이 어렵지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꾸준히 계속 읽다보면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까지 찾아 읽을 만큼 적용된다. 내가 미국에 체류한 6년 동안 난 신문을 꾸준히, 정말 매일같이 숙제인 양 구독하였다. 그리고 귀국 즈음에는 주말판(미국의 신문은 평일판은 얇고 주말판은 책처럼 두껍다)도 내가 보고 싶은 기사는 다 읽을 만큼의 내공(?)을 갖추었다. 2000년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 간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를 날 당시 토마스 랭키스트 연방대법관의 판결문 보다는 뉴욕 타임즈에 "Our three governments"라는 제하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림이 아닌 연방대법원 건물만 3개 그려 넣은 사진 한 장에서 나는 더 많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다. 9.11 사태 당시 미국에서 들끓은 애국심의 열풍 속에 통과된 소위 애국법(patriot act)의 폐해는 수 년 후 많은 판결문에서 발견되기보다 그 훨씬 이전에 신문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그리고 기자들의 칼럼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내가 공부하는 법학은 사회과학이다. 그렇기에 사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입법론이나 해석학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회도, 법학도 이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사람과 사회를 체험하며, 법률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학생이고, 미국에서의 경험이 법학도로서의 내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아, 그래서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가고?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실은 여전히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도 공부 중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뜨거운 여름'을 살고 있다.



▲ 흑인 거주지역에서 일하며 공부하던 시절, 미국과 사회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깊이 해보던 시간이기도 했다.



# 몽골에서 만난 또 다른 나



불어불문학과 교수 ● Magali Plattet

몽골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05년, 내 나이 25살 때였다. 몽골에 머무르는 2달 동안 그곳의 조용한 환경과 주민들의 쿨한 모습, 특유의 유목민 문화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곧 몽골의 4계절을 경험하면서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일하며 몽골이라는 나라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몽골 여행에서 돌아온 지 3주 만에 나는 몽골국립대학에서 프랑스어 교수 자리를 얻었고, 바로 다시 길을 떠났다. 몽골로 떠나기 위해 나는 그동안 영위해 오던 평탄한 삶에서 급선했다. 별다른 망설임이 필요치 않았다. 2곳의 직장(사보이대학 프랑스어 강사·고등학교 교사)을 그만두고 2년차로 접어들었던 박사학위를 중단했다. 알프스 산맥 기슭의 안시에 얻었던 아파트와 차, 내가 들고 다니기 어려운 각종 소지품을 모두 처분했다.

이러한 나의 결정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비춰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몽골로의 이주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나에게 아시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줬으니까 말이다. 몽골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낸 뒤 나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러시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시아 전역을 여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었다. 바로 울란바토르의 동쪽에 자리 잡은 헝타라는 지역으로의 여행이 그것이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광활한 초원, 헝타로의 여행에는 남자친구와 나의 절친한 친구가 동행했다. 우리의 여행에는 아주 특별한 트럭이 함께했는데, 트럭의 짐칸에 작은 차를 얹은 구조였다(사진 참고). 우리는 이 트럭을 타고 몽골의 초원을 중형무진 누웠다. 멈추고 싶을 때 서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원하는 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고비사막의 한복판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막 불을 피웠는데, 우리의 작은 주전자 바닥이 불길에 타며 녹아버리고 만 것이다. 우리의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책임지던 소중한 물건이 말이다. 가슴 아파하며 잠들었던 우리는 날이 밝자마자 새 주전자를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

## 프랑스의 마갈리 몽골의 마갈리



###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이지 평탄한 삶에서 급선회 개조 트럭으로 아시아 여행



### 오지에서 신비한 '도플갱어' 마침내 몽골과 내 인생의 두 마갈리 만나다

이 유목생활을 하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낮은 나라 몽골에서 마을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몇 개의 작은 건물과 유르트(전통 텐트)가 있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마을에 단 하나 뿐인 가게로 들어섰지만, 주전자를 팔지 않는다는 주인의 말에 곧 돌아야 했다. 야외 시장에서도 수소문해봤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오늘 마켓이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전해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조차,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는 받아 들여야 했다. 기운이 빠진 우리는 그 마을 주민들이 일부러 우리를 배척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인상에 휩싸였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그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트럭으로 돌아가던 우리를 작은 식당의 웨이터가 불러 세웠다. 마을의 어떤 가족을 찾아가보라는 이야기였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려니 좀 이상했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깨끗한 물을 먹고, 앞으로의 여행을 이어가기 위해 주전자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웨이터가 언급한 그 집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다. 할아버지는 금세 아주 풍성한 밥상까지 내왔다. 그 집의 주방에는 이미 갖 요리한 먹음직스런 음식이 가득했다. 한 술 가득한 양고기 만두와 고기와 야채를 곁들인 전통 국수, 따뜻한 차와 몽골 도넛까지. 때때로 이웃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앉아있는 부엌을 드나들며 할아버지와 몇 마디를 나누기도 하고,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주인 할아버지와 한 아주머니의 대화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었다(당시 나는 아주 약간의 몽골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 그들 중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다. 좀 더 자세히 대화를 들어보려 애를 썼다. 그들은 과거 형의 시제로 마갈리(Magali)라는 프랑스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온 프랑스어 교수, 그리고 러시아에 살았었다고 했다. 그리고 1993년이라는 숫

자가 들려왔다. 정말 이상한 대화였다. 마치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 나는 마갈리라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인이었고,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수였으며 1993년부터 두해 동안 러시아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당시 나는 13살이었고, 그들이 이런 나의 이야기를 알리는 만무했다). 나는 마치 마술사의 마법에 빠지거나, 아주 영묘한 사면과 만난 것만 같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그러자 주인 할아버지가 사건의 발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1993년 그 마을을 찾았던 마갈리라는 이름의 아가씨에 대해. 당시 그녀는 이 집안의 할머니와 교분을 나눴고 깊은 인상을 주고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단 한명의 외국인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두 명의 마갈리가 이곳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나는 주인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할머니가 막 세상을 떠났고 아직 영방에 누워있다고 하지만 아직 신님이 이 장례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아가씨 이름이 왜 그렇게 생뿔뿔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마을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은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그때 한 여승이 들어오더니 나를 한 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녀가 왔어. 우리의 마갈리가. 12년 만에 우리 마을의 큰 어른신을 만나러 찾아온 거야" 그리고 여승은 장례식 일정을 잡아주었다. 며칠을 이 집에 머물며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시간, 그들은 우리에게 근사한 주전자를 선물했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나의 '몽골리안 도플갱어'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그녀를 찾는 데는 4년이 걸렸고, 마침내 우리는 만났다. ●

\*Magali Plattet 교수의 영문 원고를 번역, 게재하였음.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잘나기' 장소와 시간을 뒤로하고 트럭을 개조, 3명의 '친구'들과 아시아 대륙의 '고행적 여행' 중 자유를 만끽하던 한 때.



#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싶은가



최인아 ● 광고인/前 제일기획 부사장

어디면 곳의 공기가 부족하다 싶을 땐 내안쪽으로부터 신호가 왔다. 길에 나서라는. 소설가 하루키는 이런 것을 일러 "먼 데서 북소리가 들렸다" 라고 했는데, 내게도 이따금 그런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알아 듣고 길에 나서곤 했다. 작년 여름엔 北國 아이슬랜드였고, 나영석 피디의 꽃보다 청춘 팀이 가기 몇 달 전이었다.

나는 지금껏 대개 혼자서 여행을 다녔다. 혼자 하는 여행이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외로움의 고통 보다는 혼자의 자유와 출가분함이 더 크고 좋았으므로 주로 혼자 다녔다. 한데 나이가 들어서일까. 더 이상 혼자 떠나고 싶지 않았다. 같이 가자고 친구를 꼬드겼다. 허나, 그녀는 재정 형편상 갈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 외엔 동행을 청할만한 친구가 마땅치 않은데 어쩐다? 내 마음은 혼자서라도 가고 싶어 했다. 할 수 없지, 이번에도 혼자 간다!

아이슬랜드는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땅 덩어리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과 비슷하는데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하니 대중 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웠다. 아이슬랜드 여행엔 렌트카가 거의 필수였다. 한데 나는 운전은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주차는 자신이 없고, 더욱이 해외에서는 한번도 운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곳을 다녀온 어느 블로거는, 아이슬랜드에서의 운전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니 베테랑이 아니면 혼자 운전은 하지 말라고 경고 했다. 차 없이는 안 되는데 혼자 운전은 자신이 없고... 또 한 번 어쩌나와 맞닥뜨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는 거였다. 혼자서 감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아이슬랜드에 혼자 가지 않았다. 친구와 같이 갔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사정 한 거다. "나 혼자 가더라도 숙박비랑 차량 렌트비는 드니까 너는 비행기 표만 사라" 고 나의 애원이 통했는지 친구는 결국 함께 가 주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비행기 표만 산 게 아니라 여행 기간 내내 거의 모든 식사를 책임졌다. 장난

감 같은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이틀을 보내고 드디어 우리는 차를 운전해서 도시 밖으로 나갔다. 한 마디로 장관이었다. "그래, 이런 거였어. 이래서 내가 여기 오고 싶었던 거였어." 도시에서 약간만 벗어났을 뿐인데 그 곳은 바다와 녹지, 또는 간헐천과 폭포... 눈이 휘둥그레지는 풍광의 연속이었다. 한데, 역시 운전이 문제였다. 바다를 끼고 섬을 일주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 가드레일이 없었다. 아차하면 그냥 바다로 떨어지는 거였다. 무서웠던 나는 차를 자주 중앙으로 몰았고 자주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다 맞은 편에서 차가 달려오면 놀라서 깎소리를 질렀고, 차를 피해 급하게 바닷가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이번엔 바다로 떨어질까 무서워 소리를 질러댔다. 결국 2주 여행 중 첫 날만 내가 운전하고 나머지는 내내 그 친구가 운전 했다.

친구가 내게 말했다. "너는 내가 안 왔더라도 혼자 올 거였지?" 생각해 보니 그랬다. "그래, 그랬을 거 같다...", "그래, 그게 너야. 그게 너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나면 안 하잖아. 근데 너는 무서워도 저지르더라.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무서움보다 더 크니까. 그게 너를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이 여름 여행 동안 나를 다시 들여다 보게 되었다.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내 안에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어서면 그건 해야 하는 거였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만나지만 그렇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므로 그 마음으로 이겨내곤 했다. 한데, 이 소중한 마음을 나는 잊고 있었다.

아이슬랜드로 떠났던 작년 여름, 나는 새로 일을 벌이고 있었다. 여럿이 뜻을 모아야 되는 일이었는데 각자 의견도, 입장도 다르니 지지부진,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한 일이 그런 채로 여름을 맞아 몸도 마음도 지쳤다. 그럴 때 아이슬랜드가 마음에 들어왔다. 북쪽의 끝 간 데 없이 파란 하늘,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보고 싶었고 북쪽의 찬 바람을 얼굴 가득 맞고 싶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단지 하늘이나 바람이 아니

었다. 장대한 풍경이나 화성이나 있을 법한 기묘한 풍광도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자신감이랄까, 혹은 내 안의 힘이랄까. '맞아, 나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었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우리를 넘어 여기까지 온 거였잖아' 하는 확인, 혹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랄까 뭐 그런 것... 스프루무 너지려 할 즈음 다시금 자각하게 된 내 소중한 자산이었다.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코 앞이다. 학생들은 곧 방학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방학 때가 더 바빠지도 모르겠다. 원래 방학(放學)이란 공부를 내려 놓는 시간인데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쁜 걸까. 어디를 가느라고 그렇게 빨리 빨리 인 걸까. 어쩌면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대다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아니 정하지도 않은 채 그저 빨리만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다 못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에도 우리는 타기 전에 꼭 행선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인생은 어디로 가는 지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빨리 가려고만 한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빨리 뛰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다. 이번 방학엔 다만 며칠이라도 자기 시간을 가져 보라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질문을 던졌으면 스스로 답을 모색해보는 것까지가 한 짝이다. 한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좋은 방법 한 가지는 여행을 떠나는 거다. 여행은 눈 앞에 닥친 일에 허덕이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장면들을 보여줄 테고 새로운 것들과 마주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게 될 테니. 그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인생을 사는 데 아주 값진 밑천을 장만하는 게 될 거다. 인생은 사는 내내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 무수히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이 질문과 답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줄 것이므로! ●

대한민국 모두  
어딜 가는지 모른 채  
빨리만 가는 것 아닌지



자기 시간을 가져자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답을 여행에서 찾자



아이슬랜드의 지구 북쪽 파란 하늘과 차가운 바람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 무언가에 무너져 할 즈음, 내 안의 있었던 에너지를 알려주듯 했다.

#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WORLDWIDE AJOU SUMMER PROGRAM 2016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의 여름



올 여름 전세계를 무대로 아주의 도전이 펼쳐진다. 전세계 13개국에서 글로벌 기업의 실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례한 반란 글로벌 인턴십>과 미국과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집중 언어 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AFTER YOU 프로그램 - 아주 글로벌 캠퍼스>가 진행되는 것. 올 여름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활짝 성장할 아주의 뜨거운 여름을 기대해본다.



#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한국

그리스

루마니아

헝가리

호주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파라과이

# “AFTER YOU” GLOBAL CAMPUS 2016 SUMMER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워싱턴대학/존스홉킨스대학/미시간대학

북경이공대학/상해교통대학

“AFTER YOU 프로그램 - 2016 여름 아주 글로벌 캠퍼스”가 미국과 중국 5개 대학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여름과 겨울에 이어 세 번째 “AFTER YOU 프로그램”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그 규모가 확대됐다. “AFTER YOU 프로그램”은 여러 어려움 탓에 해외 경험을 쌓기 힘들었던 학생들을 위해 김동연 총장의 발의로 아주대학교가 2015년 여름 시작했다. 첫 해 여름 미국 미시간대학, 존스홉킨스대학과 중국 상해교통대학에서 열렸고, 겨울에는 북경이공대학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름에는 미국 미시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워싱턴대학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북경이공대학으로 총 121명의 학생이 파견된다. 상생의 정신으로 인근지역 타 대학 20명도 참여한다. 강도높은 집중 언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경험한다. 파견 전에는 사전 언어 교육 및 명사 멘토링이, 파견 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AFTER YOU 프로그램”은 참가자 선발 시 꿈과 의지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와 학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학생 파견을 위한 재원은 전액 외부 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 이동성 제고라는 목표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7.18(월)~8.12(금) 4주  
마지막 1주는 자유여행(선택)  
30명(타교생 6명)  
- 월~금 하루 3시간 교육  
- 매주 2회 필드 트립  
- 공식 프로그램 종료 후 자유여행 선택 시 500달러 지원

**Johns Hopkins University-SAIS**  
7.11(월)~8.5(금) 4주  
20명  
- 집중영어수업 + 국제 관계 관련 수업  
- 현지 대학/대학원생 1명당 본교생 5명 배정 / 월~목 오후 2시간씩 버디학생과 실습  
- 매주 금요일 문화체험, 미국 정부기관 (의회, 국방부) 및 국제기구(세계은행, IMF) 탐방  
- 명사 초청 특강 : 북핵, 에너지, 환경,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 등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7.11(월)~8.5(금) 4주  
30명(타교생 6명)  
- 월~목 하루 5시간, 주 20시간 교육  
- 실전 대화 연습 : 현지 대학생 1명에 본교생 3명 배정 / 월~목 하루 2시간 자유주제 토론  
- 매주 금요일은 문화체험, 버디학생과 함께 체험학습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6.2(월)~7.22(금) 4주  
20명(타교생 4명)  
- 교수 1명당 학생 4명 소규모 수업  
- 현지 학생들과 1:1 실전연습  
- 주 1회 중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명사 특강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7.4(월)~7.29(금) 4주  
21명(타교생 4명)  
- 월~금 오전 3시간 중국어 집중수업  
- 기초 7개 레벨 / 입문 / 중급 / 고급반에서 수준별 교육  
- 현지 학생 1명에 본교생 2~3명 배정해 어학 실습  
- 주 1~2회 2시간씩 서예, 그림, 태극권 등 문화수업

**참가자 명단** 미국 미시간대학 이효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건호 심리학과 박지은 문화콘텐츠학과 박진아 건축학과 고인후 화학공학과 고세미 수학과 김미지 건축학과 유새열 전자공학과 이지현 경영학과 유지연 문화콘텐츠학과 이한재 화학공학과 조현선 산업공학과 구민주 영어영문학과 김성현 경영학과 윤다진 사회학과 김재형 금융공학과 심우성 생명과학과 김민정 정치외교학과 방주은 건축학과 양명환 기계공학과 최국원 화학공학과 이현호 전자공학과 조주원 경영학과 김경원 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김홍모 단국대 파이퍼시스템공학과 아국일 성균관대 전자전 기공학부 금강산 수원대 전기공학과 범진현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허예은 한세대 광고홍보학과 미국 워싱턴대학 허진성 e-비즈니스학과 인성우 건축학과 조성현 미디어학과 최진경 심리학과 신윤창 사학과 임동환 심리학과 양희정 경제학과 임문혁 금융공학과 이중의 국어국문학과 김유진 경영학과 박이레 정치외교학과 김윤경 사학과 박규연 전자공학과 이나현 사회학과 최상현 e-비즈니스학과 강수민 문화콘텐츠학과 이혜리 불어불문학과 정원규 전자공학과 유성환 경영학과 윤상민 금융공학과 대학원 황용하 전자공학과 김지인 정치외교학과 이예랑 영어영문학과 김경찬 기계공학과 장소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임승은 한국외국어대 영어통번역학부 백두현 성결대 행정학과 구태정 한세대 섬유패션디자인과 황혜진 강남대 국제통상학과 류성진 성균관대 유전공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엄혜인 정치외교학과 이현아 산업공학과 이바를 건축학과 양서원 기계공학과 한윤지 간호학과 방영지 영어영문학과 박지원 경영학과 김민주 국어국문학과 서현지 영어영문학과 정형주 국어국문학과 김수영 영어영문학과 이주원 e-비즈니스학과 정혜린 산업공학과 정시열 경제학과 김지용 생명과학과 이희향 국어국문학과 이시현 건축학과 김태연 불어불문학과 김도경 행정학과 김태찬 교통시스템공학과 중국 북경이공대학 박인경 정치외교학과 강유진 영어영문학과 오명희 사학과 김지은 사학과 배혜린 행정학과 삼한나 환경안전공학과 노하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원수환 기계공학과 용현수 경영학과 홍재영 경제학과 이왕희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정유재 신소재공학과 최아름 미디어학과 김수현 환경안전공학과 임진우 의학전문대학원 김상훈 전자공학과 서예협 한세대 국제통상학과 이우주 한국항공대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조도희 한국외국어대 영어학과 강지영 경기대 중어중문학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서경덕 문화콘텐츠학과 양진성 e-비즈니스학과 조덕준 e-비즈니스학과 엄정현 법학전문대학원 오민석 교통시스템공학과 한우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사라 국어국문학과 유태준 산업공학과 이다원 문화콘텐츠학과 김한울 경영학과 오환희 심리학과 이민욱 화학공학과 오형주 미디어학과 서보국 심리학과 김경훈 전자공학과 임유진 문화콘텐츠학과 권규현 기계공학과 유세희 경희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강예림 한국외국어대 수학과 신종인 한국항공대 정보통신공학 이기쁨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 피란색 글자는 타대학 참여생

# WORLD WIDE AJOU SUMMER PROGRAM 2016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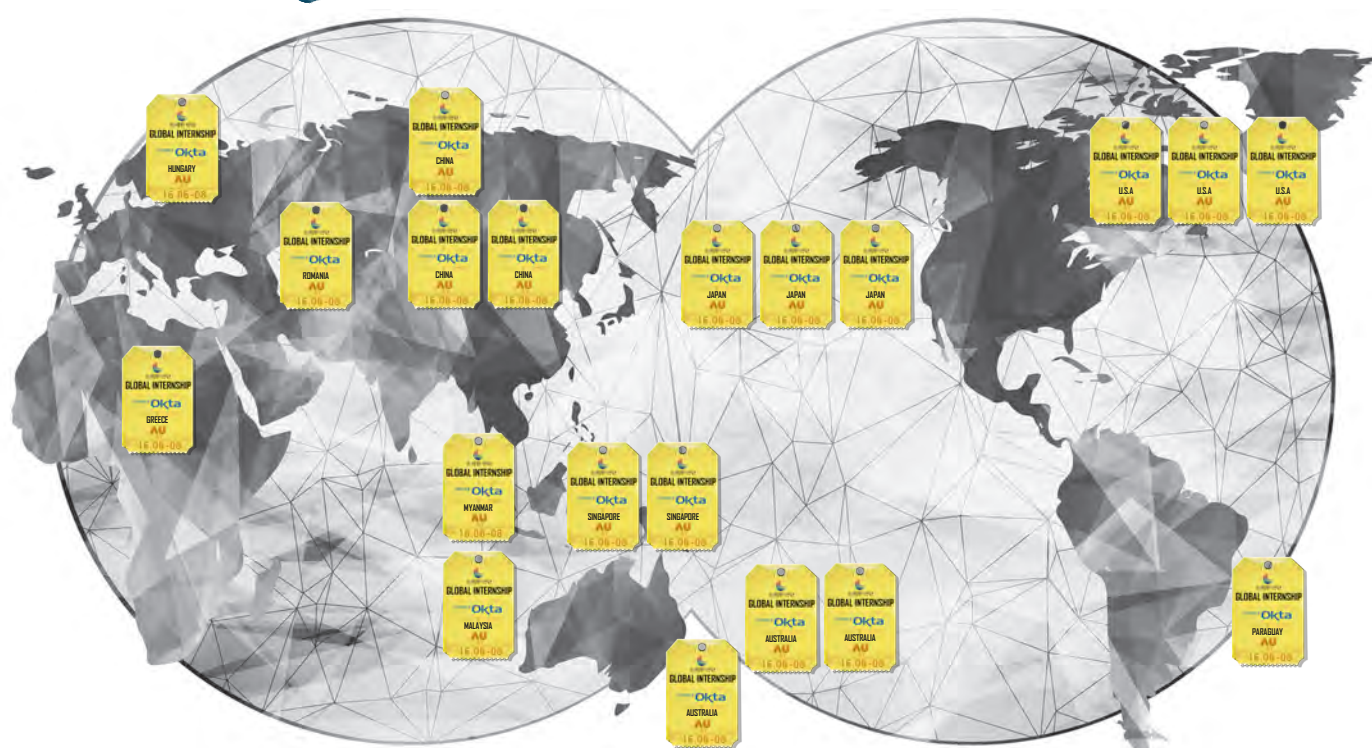
##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BMW CKP



(BMW) Munich (CKP) Los Angeles, San Diego, San Mateo, Irvine, Montgomery, Opelika, La Grange, Fort Lee, Huston, Texas

글로벌 자동차 기업 BMW, 미국 최대 한인 회계법인 CKP와 2015년 여름부터 함께 진행해온 인턴십 프로그램. 올 여름에도 각각 2명의 학생이 BMW와 CKP에서 글로벌 기업의 문화와 실무를 체험하게 됐다. BMW 인턴십은 총 5개월로 BMW코리아 본사에서 2개월, BMW 독일 본사에서 3개월을 근무한다. CKP(Choi, Kim & Park, LLP)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9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 아시아계 회계법인 중 가장 큰 회사다. CKP인턴십은 7월 중순부터 6주 동안 진행되며 파란학기외도 연계된다.

##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World-Okta



Greece 동양무역 Romania 새빛네트웍 Hungary 엠제이그룹 Australia 오지하우스그룹/대한리크루팅/다영에이치오스트렐리아 Malaysia 케이엔티 트레이딩 Myanmar 제이에스글로벌 Singapore LISTONE PTELTD/다일렉스 아시아  
Japan 한일정보무역/조인테세날/해피식품 일한월드센터 China 예지아 전자기술회사/파라다이스 백화 물류중심 유휴공사/광동통신상인실업투자유한회사 USA 예스플러스/ABC Realty US Investment LLC/참정무역주식회사 Paraguay 테라노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아주대학교가 연계하여 시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유럽과 오세아니아, 아시아와 미국 등 전세계 17개국 19개 회사에서 30명의 아주대 학생을 인턴으로 선발했다. 인턴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4~8주간 진행된다. OKTA 인턴십 중 일부는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인턴십 참가자들은 파란학기제 도전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H-MART



New York, New Jersey, Massachusetts, Pennsylvania, Maryland, Virginia, Georgia, Illinois, Michigan, Texas, California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아시안 마트인 H마트와 아주대학교가 올 여름 처음 시작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H마트는 미국 내 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조2000억원, 직원 규모는 3000명 이상인 유통 기업이다. H마트 인턴십은 총무, 인사, 재무, 마케팅, 디자인, 전산 등의 직무에서 20명의 인턴을 모집했다. 파견기간은 총 12개월이며 올 6~7월 사전 교육을 받은 뒤 본격 근무를 시작한다.

#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 # 엔진을 구매하다

3월 초, 폐차장을 돌며 상태 좋은 오토바이 엔진을 찾아 나섰다. 800만원이 넘는 새 엔진을 사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기에 팀원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 사고 차량에서 나온 데다 시동도 안 걸리는 지경의 한 엔진, 왠지 우리들 모두가 이 녀석에게 끌렸다. 우리에게 우승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느낌이 녀석과 함께 포물러600팀이 파란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긍심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일본으로 간다. 그곳에서 열리는 학생 포물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팀으로서 그 정체성과 자긍심을 보여주기 위해 태극기 색상을 모티브로 차량을 디자인했다. 약 220kg의 무게, 제로백(사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4초 중반을 예상한다. 포르쉐의 박스터보다 빠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는. ^.^

### # 도전은 계속 된다

1학기가 끝난 뒤에도 도전은 이어진다.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16 학생 포물러 대회(2016 Student Formula Japan)' 참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 우리는 유일한 한국팀, 전세계 11개국에서 온 103개 팀과 맞붙게 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대 등관에서 굵은 명함을 들고 있는 동료들, 모두에게 응원과 감사로.

## 자동차 제작, 포물러 600 팀

600cc 차량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 파란학기제를 통해 국내외 학생 포물러 자동차 대회에 참가하는 것까지가 목표다. 소학회 활동을 함께 하던 기계공학과 선후배를 중심으로 10명의 아주인이 뭉쳤다.



기계 심기선, 차수현, 안요한, 김태훈, 정찬식, 배정훈, 박병연, 관용민 / 미디어 정원오 / 교통공학 김시원

### # 제대로 한번 해보자

2015년 11월, 시나브로 팀원들이 한방에 모였다. "애들이, 우리 다음 학기 휴학하고 진짜 제대로 한 번 만들어보자." 그 후 우리의 눈에 띄는 파란학기제 포스터- '내가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지?' 그렇게 파란학기제에 참가하기로 한 시나브로 팀원들은 일주일 간 회의를 하며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 수립에 나섰다.

### # 의욕이 활활

3월 중순, 포스터 촬영에 들어갔다. 5부작 드라마를 2편 제작하겠다는 청사진을 수립한 우리. 그 중 첫 번째 드라마인 <내가 연애를 아느냐> 포스터 촬영에 돌입했다. 포스터를 시작한

## 웹드라마 기획제작, 시나브로 팀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브로들, 시나브로는 한 학기 동안 단편 드라마 2편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다. 시나리오부터 촬영, 사운드 디자인까지 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국어국문과에서 모인 재주꾼들이 직접 해나가고 있다.



로 우리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대본 리딩과 의상 협찬, 장소 지원까지 기술 풀리기 시작하며 우리의 의욕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 # 힘들어도 웃으며, 지쳐도 응원하며

4월 내내 이어진 촬영.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씩의 강행군을 무려 12일 동안 이어갔다. 다들 몸이 '말랑카우(폭신폭신 말랑말랑 추임새)'가 되어버린 우리 팀. 그러나 이렇게 지쳐 쓰러질 우리가 아니다. "We can do this all day!" 힘들어도 웃으며, 지쳐도 서로를 응원하며 시나브로는 열심히 달렸다.

### # 첫 번째 성과, 그 값진 열매

시나브로의 첫 번째 웹드라마 <내가 연애를 아느냐>가 네이버 TV캐스트 채널을 떠났다. 무려 7개월 동안 짐을 포기하고 각종 유혹을 떨쳐내며 흘린 땀이, 드디어 열매를 맺은 것. 5월 말부터는 두 번째 작품 <나는 오늘> 촬영에 돌입했다. 그리고 1학기가 끝나도 이어질 우리의 활영... 시나브로는 오늘도 '카메라~ 롤! 사운드~ 스피드 레디, 액션'을 외치고 있다. 후회 없는 작품을 위해 파이팅!

문화콘텐츠 이건웅, 송윤근, 지영림, 최자우 / 국문 안지훈, 정다빈 / 미디어 서명수, 박수정, 이진혁, 유정

## 3인 인디게임 제작 및 출시, 크림즈 팀

인디 게임을 제작해 실제로 수익을 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 명의 팀원이 기획과 프로그래밍, 그래픽으로 역할을 나누어 게임을 만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CREAMS'라는 이름의 인디 게임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 목표다.



### # 게임으로 만나다

크림즈 팀원 3명은 게임을 하다 만났고 게임으로 친해진 사이다. 우리는 '대학 졸업 전 우리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4년이 지나 다들 졸업을 앞두고 된 2016년. 이제 함께 모여 게임을 만들어 볼 때가 됐다! 각자 별려둔 다른 일들은 접어두고 의기투합했다.

### # 그렇게 시작된 도전

2016학년 1학기 시작을 앞두고 의문이 들었다. '과연 우리가 수업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었다. 의문은 곧 불신으로 이어졌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때 우리 팀이 접한 것이 바로 파란학기제. 우리는 '이참에' 다 같이 미쳐보자라는 생각으로 파란학기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세를 몰아 경기도 게임 창조 오디션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까?' 싶었지만 서류 심사-1차 오디션을 기적적으로 통과하며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다.

### # 멘토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게임 창조 오디션에 참가하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결과 우리의 게임은 '나뉘어' 발전해 갔다. 캐릭터의 생동감과 화면 구성의 깔끔함, 게다가 미학적 발전까지!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최종 심사를 앞두고 수정과 추가 제작이 계속되며 모두가 지쳐갔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마주하니, 그 뿌듯함이란!

### # 대회 결과와 그 후의 우리

최종 결선 무대, 발표는 무사히 끝났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우리는 결국 순위에 들지 못했다. 허탈함에 며칠을 그냥 출러보내던 어느 날, 깨달음이 머리를 쳤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게 정말 많다는 것. 이번 경험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테랑 게임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봤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무대 위에서 발표에 나서보았을 뿐 아니라 게임 출시 이후의 과정까지 경험해볼 수 있었잖나? 그리고 또 하나의 틀림없는 사실, 우리 앞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

미디어 윤병준, 주지훈, 원민재

아름다운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 01 TRAVEL

#### 한국에서의 일주일

외국인을 위한 한국 여행 블로그 제작

### 02

#### 캄보디아 온라인 의료사업

캄보디아 의료시장 조사 및 취창업

### 03

#### 중국에서 한국어 가르치기

중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류

### 04

#### 캄보디아 의료 에이전트사업

캄보디아 의료시장 조사 및 의약품·의료기기 사업

### 05

#### 캄보디아 핀테크 스타트업

캄보디아 시장에서 모바일 보험 스타트업 창업

### 06

#### 해외 창업 위한 기초 다지기

KOTRA와의 연계 통해 동남아시아 창업 도전

### 07

#### 해외 기업 체험

해외 근무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 08

#### 무인자동차 차량설계 입문

무인자동차 핵심 기술 학습 후 관련 해외기업 체험

### 09

#### 3인 인디게임 제작 및 출시

3인 소규모 인디 게임 제작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 10

#### 금융 예측 프로그램 개발

모의 투자가능한 금융 예측 프로그램 개발

### 11

#### 자작 자동차대회 참가 (Student Formula 250)

차량 설계·제작 후 전국 대학 생자작 자동차 대회 참가

### 12

#### Formula 600 자체 설계 국제대회 참가

국내외 학생 포물러 대회 참가를 위한 600cc 차량 설계 및 제작

### 13

#### 통화정책을 내손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참가

### 14

#### 파이썬 프로그래밍 개발

컴퓨터 언어 파이썬을 사용한 프로그래밍 개발

### 15

#### Web App 개발·출시 도전 I

최신 웹기술이 반영된 웹앱 개발 및 출시

### 16

#### Web App 개발·출시 도전 II

최신 웹기술이 반영된 웹앱 개발 및 출시

### 17

#### 중고도서 거래 플랫폼 기획

스타트업 '책공'과 함께 위치기반 중고도서 거래 플랫폼 기획

### 18

#### 틸트드론 고정익 드론 제작

기존 드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드론 개발

### 19

#### PC 플랫폼 게임 로모토미 제작

'로모토미' 게임 데모버전 완성 후 출시

### 20

#### 3D프린팅 기술 기반 창업

가성형성을 갖춘 3D프린팅 설계 및 제작, 관련 사업 도전

### 21

#### 바이오 촉매 개발

3-하이드록시 프로판산 생산을 위한 바이오촉매 개발

## AJOU 2016 1st 파란학기 중간 리포트

# 파란학기,

# PARAN SEMESTER 42 ADVENTURES?

스스로 설계하여, 스스로 도전하는 프로젝트들!

## 해의 영화제 출품 단편 영화 제작, 섬팀

바다에 가려져 그 전체 크기를 가능하기 어려운 섬. 섬 팀은 잠재된 능력을 한껏 끌어 올리자라는 목표로 한 학기 동안 단편 영화 2편을 제작하겠다는 포부다. 해외 영화제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 역시 섬의 도전과제.



### # 레디, 액션

제작을 위한 준비, 즉 프리프로덕션이 2월부터 3월까지 이어졌다. 각자 맡은 역할의 기본 자식을 습득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첫 단편 영화의 경우 우리의 호흡을 맞춰나가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 # 시나리오, 그것이 문제였다

"아직도 시나리오가 결정 안됐다고?", "그럼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해?" 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촬영 날은 정해져 있는데 그 2주 전까지도 시나리오가 결정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나리오가 확정됐고 이제 중간고사와 촬영 일정이 겹치게 된 상황. 고강도 최대한 시간을 낼 수 있는 팀원들이 필요한 작업을 진행했기에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 # 사막의 난비

어렵게 작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 사이,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촬영 장비 렌탈 업체의 이벤트에 시나리오가 당첨되어 100만원 상당의 장비 지원을 받게 된 것! 제작비에 여유가 생기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가 신경 쓴 것 중 하나는 바로 반찬. 잘 먹고 열심히 찍어 봅시다!

### # 크랭크인, 크랭크업

두 번째 영화 촬영이 시작됐다. 더 좋은 장비와 완벽한 조명, 어떤 일로 모든 촬영이 잘 진행되니 했다니 또 다시 뼈저리게 소리가 들려온다. 더운 날씨에 짜증이 치솟으면서 비까지 내리는 상황. 하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인가. 실내 장면들을 받으며 돌려 부족한 촬영 시간을 꼭꼭 채워 넣었고 모든 팀원이 정신력을 발휘하여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 # 항상 응원해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편집과 후반 색 보정. 이 이야기는 편집 담당자인 조영아가 당분간 머리를 싸매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영아야 힘내. 우리는 너를 항상 응원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원 모두 놓이지 말고, 정심 출 꼭 잡고 있기를. 우리에게 남아 있는 가장 무서운 시간 - 특 까놓고 말하는 피드백 타임-을 염두에 두시고들!

문화콘텐츠 공병호, 조영아, 정혜린 / 미디어 전영권, 강민석, 장진혁, 전수호

### # 전시 기획에 도전하다

프로젝션 맵핑에 관심이 있는 선후배들이 의기투합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경험해왔던 프로젝트 맵핑을, 이번 파란학기제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구현해보고자 한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익힌 후 직접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공간에 실제로 펼쳐내겠다는 포부. 미디어 전시 기획자로서의 첫발, 다같이 힘차게 도전해보자!

### # 오늘도 밤샘

우리는 런닝타임 20분의 작품을 만들기 하고 9명의 팀원을 3개 팀으로 나눴다. 5월에 접어들면서 3팀 모두 본격 맵핑 작업에 들어갔다. 서로의 작품을 모니터하며, 생산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중. 앞으로 이를 뒤가 우리만의 중간 상영회다. 오늘도 예외 없는 밤샘작업.

## 프로젝션 맵핑 제작 및 전시, 빛샘팀

빈프로젝터를 이용해 평면이 아닌 3차원 형태의 오브제에 투사하는 미디어 아트를 제작. 파란학기제를 통해 작품 제작부터 전시 기획까지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미디어학과 선후배 9명이 팀을 이뤄 함께 하고 있다.



### # 전시회를 앞두고

지금은 새벽 5시. 전시회 날은 다가오는데, 공간과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 동아리방도, 강의실도 아닌 신학생회관 2층 복도에서 작업을 하던 중들이 터지고 있다. 인적 드문 새벽까지 기다렸다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든다. 그 와중에 들려온 행복의 소식-그동안 속을 써서 오던 전시회 장소가 드디어 확정됐다. 학생이란 이유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빛샘 전시를 보고 싶은 분들은, 6월3일부터 6월6일까지 독성 한강공원에서 오세요!!!

소프트웨어 장다혜 / 미디어 유정, 김태산, 서명수, 공병국, 백수영, 임재석, 박현우, 김희수

### # 디자이너라는 꿈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이 분야에 발을 들여 놓고 꾸준히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해왔다. 학교를 휴학하고 지난 2년간 일반 패션 브랜드에서 브랜드매니저로 일했고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디자이너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경험도 쌓았다.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작심하고 있던 차, 학교에서 파란학기제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이상 휴학을 하지 않고 내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 # '룩북'을 만든다

내 브랜드의 이름은 'MASTER NUMBER'. 패턴 제작-재단-봉제의 순서를 거쳐 16SS 옷을 이 하나 돌씩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룩북(Look Book) 제작도 시작.

안 쓰는 지하실을 청소해서 촬영 장소를 마련했다. 시즌 컨셉을 담은 아트웍도 직접 설치했다. 촬영은 이를 동안 밤을 꼬박 새워 진행됐고, 모두가 고생한 덕에 'BLACK DNA'라는 컨셉의 룩북이 완성됐다. 'BLACK DNA'는 남들과 구분되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분명히 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디테일은 DNA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다.

### # 패션쇼를 준비하다

지금 나는 내 브랜드를 준비함과 동시에, 선배 디자이너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한철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이너 브랜드 'HANCHULLEE'가 나의 또 다른 일터.

이한철 디자이너와 함께 최근 서울 문래동 대문시장에서 열렸던 '16FW 서울 패션 위크 트레이드 쇼'에 참가했다. 직접 패션쇼를 준비하며 여러 경험을 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음 패션쇼에는 꼭 내 이름을 건 브랜드로 참여하러 다짐해본다.

## 패션 브랜드 제작 및 론칭, 김현수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론칭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옷을 디자인하고 샘플을 제작, 룩북을 만들었다. 나만의 브랜드를 준비함과 동시에 선배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미디어 김현수

# 어디까지 왔니?

아주대는 올 1학기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과제를 설계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 파란학기제는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에서 따온 이름이다. 더불어 일(자신의 틀)을 깬다는 뜻의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겼다. 첫 번째 파란학기제에는 42개팀 120명이 참여, 자신들이 설계한 도전과제를 실천해가고 있다. <아주인사이트>가 첫 파란학기 참가팀 중 6개 팀의 여정을 따라가 봤다.

22

**다중 드론 알고리즘 제안**

대상물 추적 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23

**위험 감지용 드론 제작**

2개 이상의 드론을 활용한 위험 상황 감지 알고리즘 구현

24

**멀티플레이 게임 제작**

로그리크 스타일 PC용 협동 게임 제작

25

**공유경제 활성화 블로그**

블로그를 통해 공동 관심사를 지닌 소비자 간 공유 경제 구축

26

**신차원 코딩교육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27

**패션 브랜드 제작 및 론칭**

패션 브랜드 론칭 - 룩북(Look Book) 준비 및 제작

28

**아주대 3D 스트리트 뷰 제작**

드론 360도 카메라 활용 신개념 스트리트 뷰 제작

29

**루비온레일즈 웹서비스 개발**

루비온레일즈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웹서비스 개발

30

**통섭형 인재로 거듭나기**

수원 와이즈 아카데미 참여-인문학-경영학-봉사활동

31

**수화를 통한 농아인 심리상담**

수화를 활용한 농아인 심리상담 및 학습지원

32

**프로젝션 맵핑 제작 및 전시**

프로젝션 맵핑을 적용하고 전시 기획 통해 관객과 공유

33

**해외 영화제 출품 단편 영화 제작**

단편영화 제작 후 해외 영화제 출품 도전

34

**웹드라마 기획제작**

드라마 기획 제작 및 연출, 페이스북 영상 페이지에 활용

35

**남도 답사 프로젝트**

남도 지역 답사 후 출판물 제작

36

**미국 건축물 답사 연구**

미국 주요 도시의 건축물을 답사한 뒤 출판물 제작

37

**아주 위대한 고전 읽기**

현대사상에 대한 고전 집중 탐구. 이를 영화 해석에 적용

38

**MLB 취재 및 다큐멘터리 제작**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인 선수들 주제로 다큐 제작

39

**20대 주도 뉴미디어**

360도 카메라 SNS 플랫폼 활용한 대학생 인문 수업

40

**요리를 통한 세계 문화 교류**

요리를 통해 외국인들과 문화 언어 교류, SNS를 통해 확산

41

**과학의 요리, 요리의 과학**

요리에 대한 공부를 기반으로 식품첨가물 및 수출물의 원리 이해

42

**효율적인 기계부채 상환전략 제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계부채관리 방안 제안

# WELCOME - JOKO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적도상에 넓고 길게 위치해 있다. 면적 190만km로 한반도의 9배, 인구 2억4700만명으로 세계 4번째다. 87%가 이슬람교도이고 자바족과 수다족을 비롯,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인구 세계 4위의 거대 소비 시장이며 GDP 세계 16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풍부한 석유와 가스, 석탄, 주석, 니켈 등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한국은 인니의 5위 교역파트너이며, 인니는 한국의 12위 교역파트너(2014년 기준)다.



“  
듣다보면 해결책 나오고,  
즉시 실행해야 효과 높아  
4시간 할 공부, 8시간 하고  
컴퓨터게임 접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으로  
젊은 시간 채우길  
”

아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린다.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2014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뤘다. 최근 지지율도 74%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빈민촌의 데나무 집에서 자랐다. 그 시절 경험했던 세 차례의 강제철거가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성정의 자양분이랄 수 있다. 12살부터 아버지의 가구점에서 일하면서 공부해 명문 가자마다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하고 가구 사업에 진출해 성공시키기도 했다. 2005년 중소도시 수라라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현장에 깊숙이 들어간 소통과 정책, 검소와 청렴으로 단숨에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시장 시절부터 블루수칸(Blusukan-불시에 찾아간다는 뜻의 자바어)을 강조하며 민생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을 기획 실천해 왔다. 개혁과 서민중심 정책으로 높은 지지를 받으며 탄탄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를 국민 방문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아주대를 찾아 한국-인도네시아 젊은 이들과 만났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역사 상 최초의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룬 첫 서민 출신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김동연 총장과 나란히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함께 하는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김동연 총장과 아주대가 추진 중인 '유쾌한 반란'에 대해 공감하면서 양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토크 콘서트에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기자협회와 아시아엔, 아주대가 공동 주최했다. 1시간 남짓 이어진 유쾌한 반란 토크 콘서트를 자상 중계한다.

#### 정리 아슬(브랜드전략실)

**김동연** : 요즘 젊은이들은 무한경쟁 속에 놓여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잘 되지 않아 실망하는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꿈을 찾은 청년들도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저와 아주대는 이런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쾌한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어엎는 것이 반란이지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에 이런 조코위 대통령이 바로 그러한 반란을 해온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터 대통령이 될 마음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코 위도도** : 저는 강가 작은 마을, 목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요. 다른 친구들보다 우

월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다른 친구가 2시간 공부하면 저는 4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4시간 공부하면 저는 8시간을 채웠습니다. 사업할 때에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가구 사업을 했는데, 동종 업계의 다른 동료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본이 너무 부족했기에, 그렇게 일하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날이 많았고,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피며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분명 길이 열립니다. 시장과 주지사,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저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다른 이들 보다 열심히 일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은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니다. **김동연** :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5000만명에 육박하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규모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능력과 훌륭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탈권위적 리더십으로 유명한 조코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조코 위도도** :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주 3-4일 정도, 현

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농부-어부, 작은 마을과 도시를 찾아가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제가 해결책 발견하게 되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 어진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 배움으로써,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연** :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코 위도도** :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어려움을 이웃 국가들과 함께 해결할 수도 있죠. 통합은 교류이고 관계입니다. 일례로 어느 나라에 작은 비료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다른 나라에 더 큰 비료 공장이 있다고 하면, 이를 다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규모의 비료 공장이 될 수 있겠지요. 식량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관계 맺기가 성공하면 아시아가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리더와 리더가 만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각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눈치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WIDODO IN AJOU

## 김동연 아주대 총장 토크콘서트

아주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내 3개 대학- 반둥공과대학, 인도네시아국립대학, 파자라단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에는 현재 학부에 1명, 국제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각각 1명, 4명의 인도네시아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역사의 수레바퀴  
 사실 젊은이들이 굴려와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환경, 자신, 사회 변화 위한  
 유쾌한 반란에 함께 나서주길  
 ”

### 김동연 총장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창계천 판자집에 살다 경제이주 당해 천막에서 살기도 했다. 상고 재학 중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일과 병행해 야간대학을 다녔고, 졸업하던 해 행정 입법 고시에 동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몸담았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라는 철학으로 일해왔다. 공직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드뱅크(WB) 프로젝트 매니저와 존스홉킨스대 방문교수를 거쳐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장차, 차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유쾌한 반란'을 주창해 온 김 총장은 '반란이란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며 환경, 자기 자신, 우리 사회에 대해 '건전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015년 아주대 총장에 취임해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한 'AFTER YOU' 캠페인, '파란학기제', '유쾌한 반란 글로벌인턴십', '아주희망(SOS(Save Our Students))', '브라운백 미팅', '총장 북클럽' 등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하며 소통과 참여의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김헌배 베게이코리아 대표** :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조코 위도도** : 지난 8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직접 인도네시아 기관에 방문하면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관련된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빨리 처리됩니다. 직접 방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혹시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다면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장품 회사들에게 아주 큰 시장입니다. 51%의 인구가 여자거든요(웃음). 화장품 시장의 미래가 밝습니다.

**김동연** :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철 같은 의지와 집념을 가지신, 추진력이 대단한 분일 것으로 추측했었습니다. 오늘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 얼마나 마음씨가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난 마음씨가 대통령의 비전이나 추진력에 앞서 더욱 훌륭한 면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공동주최



**김동연** : 젊은 시절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저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낙관적인 자세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조심스러울 정도로 요즘 청년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겠지요. 대통령께서는 만약 우리 학생들 나이의 대통령 자신이 앞에 있다면, 젊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조코 위도도** : 20살 때 록 음악 특히 헤비메탈을 좋아했습니다. 레드 제플린, 딥퍼플, 메탈리카, 퀸 이런 음악들을 좋아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는 것과 경험을 쌓는 것은 모두 젊은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가 4시간 공부하면 여러분은 6시간, 8시간 공부하세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방학이나 휴일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고 여러 활동들로 채워보십시오. 디지털 이코노미, 패션 등등 여러 분야를 공부해 보세요. 디지털 분야의 미래는 매우 밝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장차 맞보게 될 세계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적용하고 사용하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일 테니까 말입니다.

**김동연** : 요즘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때문에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듯합니다. 많은 경우 역사의 수레바퀴는 젊은이들이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과 실천을 어떻게 이끌

어 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조코 위도도** : 총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사회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도와줘야 하지요. 우리는 조부모님, 부모님,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요. 아무리 부자라도 혼자서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족과 친구들, 우리가 속한 사회와 환경에 관심을 썼을 때 더 풍성해집니다.

**김동연**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했습니다. 수교 이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하신 게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이 정도로 두 나라 관계가 돈독하고 교류 규모도 큼니다. 양국에서로 진출한 기업도 많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보다 더 돈독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조코 위도도** :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생활하고 일하는 모습이 많이 비슷합니다. 얼굴 생김새와 음식문화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지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4만5000명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에는 교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젊은이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동연** : 이 자리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 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중 한분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과짜 같은 진짜 특별기고



### 창업성공률 3%...말만의 도전·열정으로 안되는 세계

### '남의 말에 집중', '제대로 된 질문'이 혁신의 힘

### 목표는 '감당할 실패'... 그 여정은 자체로 보상



# 수업 들으러 온 아마추어이고 싶지 않았다

- 벤처올림픽 Boston Mass Challenge에 서다

기계공학과 11학년 이종현

정말 우연한 기회였다. 오래전부터 창업을 동경해 왔던 나였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선블리 뛰어들지는 못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을 뿐 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프에 참여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 과정을 지켜본 경영학과 김경호 교수님이 KIC Start Mass Challenge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다. 운 좋게도 최종 참가자 25개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울림파라 불리는 매스 챌린지(Mass Challenge)에 한국의 스타트업을 진출시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마디로 스타트업 국가대표를 위한 태릉선수촌인 것이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정말 기뻐했다. 출국은 한 달 뒤.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 마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었다. 인당 2만 달러가 지출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곳에서의 시간을 허투루 쓸 수는 없는 일. 출발하기 전 목표 세 가지를 정했다. 1. 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2. 나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기 3. 언제든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결과적으로 나는 보스턴에서의 3주 동안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뤘다. 그리고 이 경험이 어쩌면 앞으로의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지도 모르겠다.

보스턴에서의 교육 첫날 맨일자리 정중앙에 자리를 배치 받았다. 영어를 못하는 자라 부담이 컸다. 그리고 시작된 자기소개. 사실 그 시간부터 많이 놀랐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됐고 자기소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팀이 아주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냈다. 학력과 경력 또한 정말 경쟁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짧은 영어로 내 소개를 했다. 나는 대학생이고 당분간 취업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교육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현지 멘토와 함께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켜갈지 끊임없이 토론했다. 매주 한 번씩 진행 되는 10분짜리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이 깨졌다. 끔찍해(terrible)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정도. 정답이 있는 질문은 단 한 개도 없었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게다가 팀원들과의 사이도 좋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내가 그간의 불만을 쏟아냈고, 대판 싸움이 났다. 그리고 팀원 중 한 명이 짐을 싸 귀국해버렸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내 이야기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었다. 수업을 들으러 온 아마추어 대학생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3주간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발표 날, 실제 매스 챌린지 심사위원과 투자자들이 점수를 매겼다. 평소 무대 공포증이 있는 나였지만 왜인지 그날은 떨지도 않고 실수도 없이 10분·30페이지짜리 발표를 깔끔하게 끝냈다. 그리고 심사관에게 처음으로 들은 말은, "I love this idea." 내가 받은 점수는 25개팀의 평균보다 딱 1점 높았다. 경쟁한 팀들 사이에서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나에게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작은 성공이었다. 나는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할 뻔이었다. 목표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주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느꼈다. 그중 하나가 '미국은 왜 끊임없이 혁신' 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도 혁신에 관한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다. 하드웨어적로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

었다. 바로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한국에서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나 같은 대학생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 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다. 이 작은 차이가 불러오는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하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은 더욱 견고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보스턴은 세계적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서로 경계 없이 붙어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매일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토론을 벌이는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우리가 받은 교육 과정에도 보스턴의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식사 때마다 원형 테이블에 앉아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잠깐 커피를 마시러 나온 틈에도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토론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나도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렸고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영국에서 스타트업 우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가 그랬다. 우리는 식사 중, 쉬는 시간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나의 또 다른 목표 하나가 루게 된 것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진짜로 창업을 시작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와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말이다. 잘못된 점을 빠르게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는 능력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 새로운 5명의 유능한 팀원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만났던 영국 우산팀과도 계속 교류하고 있다. 우리가 매스 챌린지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곳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렇기에 떨어져도 아쉬움은 없다(현재 우리 팀은 매스 챌린지 대회에 지원한 전세계 2500여개팀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1차 합격 500개팀 안에 포함됐다. 최종적으로 매스 챌린지에 참가할 팀은 총 128개팀이며, 곧 당선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실 나는 과짜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학생으로서의 항상 취약이었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포기 선언을 하고 문제집 한 권 풀이본 적 없었다. 그러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다시 공부를 시작, 재수를 했다. 대학에 외서는 좋아하는 사진만 찍으러 돌아다녔다. 덕분에 1번의 학사경고를 맞았고 2번째 학사경고는 가까스로 피했다. 사진 동아리 회장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무작정 휴학을 해버리기도 했다. 이번에는 창업한다는 이유로 휴학을 했다.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서는 아니다. 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확률적으로 창업이 성공할 확률은 3% 이하라고 한다. 실패할 확률이 97%라는 소리다.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패는 물론 운도 있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작게 실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실패만 하고 싶다는 말이다. 내가 창업을 하려는 이유는 단순하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싶어서다. 내가 만들어낸 가치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만큼의 희열을 느낄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내 좌우명 중 하나는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라는 말이다. 희열을 느끼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고 싶기에 나는 실패하더라도 창업에 도전한다. ④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creative for great



바르게, 다르게, 크게-

매스 챌린지(Mass Challenge)

미국 보스턴을 근거지로 해 매년 진행되는 스타트업 올림픽. 2010년 시작됐다. 매 대회마다 전 세계 2500여개 팀이 지원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최종 128개팀을 선발한다. 최종 참가팀은 4개월 동안 보스턴 소재 매스 챌린지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둔 팀에는 수억원의 상금과 여러 투자기회가 제공된다.

KIC 스타트 매스 챌린지(Start Mass Challenge) 프로그램

매스 챌린지(Mass Challenge)에 한국의 스타트업을 진출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한국 스타트업 25개팀을 선발해 미국 보스턴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3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스타트업 전문가와 매스 챌린지 심사관들이 직접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한다.



# 알파고, 실업·빈부격차 심화 예고

## 질문없는 답맞추기 교육 그들 시대 위한 것 아냐

### 인공지능, 세상 대변혁은 사실 어떤 가치의 세상이나 인간에게 달려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교수 기고

# 알파고 승리로 인간 직관의 중요성 더 커지다

- 알파고 vs. 이세돌, 세기의 대결이 남긴 것

감동근 전자공학과 교수

세기의 대결에서 이세돌 9단의 패배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면 머지않아 이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저 강력한 계산능력에 의존해 무차별 탐색 기법으로 체스를 정복한 딥블루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인간의 직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바로 그 직관을 흉내 내어서 바둑을 정복한 것이다. 어쩌면 그 직관이라는 것은 인간 지성의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원해야 했던 인간 지성의 약점이었지도 모른다. Solved game' 상태로 들어간 알파고라면, 또는 이세돌 9단에게 무한대의 제한시간이 허용된다면 모든 것을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도 과연 직관이 필요할까?

알파고의 성취가 시사하는 바는 바둑과 같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목표와 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라면 어떤 문제든지 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을 컴퓨터가 인간의 고유한 직관과 통찰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목표와 규칙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면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론 한 가지는, 컴퓨터는 최소한 그런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세상을 접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번식 가능한 모든 공간을 접수하도록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있다. 이번 대결이 있기 전에는 AI라고 하면 인공지능보다는 조류독감이나 먼저 떠올랐다. 또, 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겪었던 일을 기억해보라. 우리가 이보다는 컴퓨터를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영화적 상상력은 우리가 가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컴퓨터에 자의식을 부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자의식의 구조와 작동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무척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약한 인공지능이 충분히 연결됐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특히, 컴퓨터가 숨겨려고 할 때)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에 관한 논의보다 훨씬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먼저 실업 문제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도입되면 일자리가 대 규모로 사라질 것이다. 여전히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장의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직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종에서 과거에 열 명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장이나 사무실의 자동화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 또, 인공지능은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부자들은 다수의 인공지능을 구입해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구글이 알파고라는 프로토 타입을 통해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도 인력과 자본을 집중 투입하면 금방 '메타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역량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5년, 10년은 커녕 단 3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 정실 실패를 용인해주는 문화가 있는가? 구글이 오늘날 위치에 오르게 된 데는 "당신이 컴퓨터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회사 분위기가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컴퓨터와 구별되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는 주로 문학 비평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다. 좋은 작품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필연적인 결말로 이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작품에서는 이야기만 잔뜩 벌여놓고 수습이 안 되니 (연극 무대의)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과 같은 존재가 억지로 교통정리 해주는 것을 비판할 때 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 용어를 좀 더 문자 그대로 의미로 사용한다. 즉, 기계(인공지능)가 너무 발달해 거의 신의 경지에 드는 것을 뜻한다. 매트릭스 3부작의 최종편 <매트릭스 레볼루션>에서 매트릭스를 통제하는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기계 이름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였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부제를 달고 2009년에 출판된 논문(S. Bushinsky, "Deus Ex Machina—A Higher Creative Species in the Game of Chess", AI Magazine, vol. 30, no. 3, 2009, pp.63-7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있다.

"체스에서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체스 플레이어인 일반적인 진행에서 벗어나는 위험을 가까이 감수하느냐의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인간이 (체스) 컴퓨터와 맞서는 데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방법은, 컴퓨터의 창의력을 제한하기 위해 뻔한 길로 이끄는 것이었다"

즉, 적어도 체스에서는 창의력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인간이 컴퓨터보다 뛰어난 점은 그래도 상상력과 창의력인데, 이것이 두 세계 분야에 걸쳐있으면 더욱 좋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장인이며 철학자이며 의사이며 예술가를 지향했듯이, 폭넓은 교양을 갖고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파고의 인공 신경망은 삼만 개 인공의 뉴런을 흉내 냈지만, 인간은 대뇌피질에만 약 천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어서 훨씬 큰 틀에서의 패턴 인식이 가능하다.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은 "체스 인공지능을 만들기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지각이나 운동 능력 면에서 한 살짜리 아기만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정보 업무보다는, 복잡한 사소통을 하고 물질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객관식 보기가 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일에서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이미 18세기에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는 "어떤 답을 하나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나냐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다. 위대한 질문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자꾸 질문을 하도록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진도 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 눈치를 준다. 상상력(想像力)을 자극하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는 능력이다.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가 최고이다. 바둑도 큰 도움이 된다. 창의적인 생각은 멍하니 있을 때 많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쁘다. 인공지능과 더욱 밀착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문제집을 열심히 풀게 해서 명문 대학 들어보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번 알파고 대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은 바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었다. 알파고와 관후이 2년과의 기보를 보고 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직은 인간 최 고수를 이길 수는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바둑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기술을 객 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했던 것이다.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 가려면 더 많은 융통성과 적응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손에 달려 있다. ●



Global Alumni Message

# GEORGIA TECH

## ‘열심히’는 ‘운’도 만든다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최승겸** 토목공학과 92학번



강의 우수 교수에게 주는 목허드마틴 상을 수상했다.



학회에 함께 참가한 연구실 학생들과의 한 때

최승겸 동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공과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를 졸업하고 2001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5년 만에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그의 앞에는 늘 길을 밝혀주는 특별한 인연들이 있었다.

1992년 아주대 토목공학과에 입학한 최 동문은 학업에 뜻을 둔 학생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 과목 두 과목 수업을 들을수록 흥미가 생겨났다. 열의를 다해 강의를 하고 인생에 대한 조언과 상담에 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수들과 함께 한 덕분이었다. 특히 건설시스템공학과 신영석·이상덕 교수의 수업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아주대 재학 시절 내게 관심을 갖고 칭찬해주셨던 교수님들 덕에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힘이다. 학생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늘 마음속에 가득했다.”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아주대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까지도 그는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해외 유학을 생각할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 한창 입사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을 무렵, 지도 교수인 신영석 교수의 주선으로 최 동문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라이트주립대학

(Wright State University)으로 떠날 수 있었다. 뜻하지 않게 주어진 기회였기에 더욱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했다. 하지만 ‘언어’라는 장벽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한국인 공대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언어 장벽에 가로 막힌다. 자기 분야에서 남들보다 2~3배는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 아주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조지아공과대학에 교수로 임용될 때에도,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왔다. 그랬기에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아,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긴 했었지’라는 순간들이 모이면 운도 절로 따라오는 것 같다.”

좋은 스승들이 계셨기에 그의 오늘이 가능했다. 이제 그가 후배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스승’이 되고자 한다.

“부지런히 외국어 공부를 해두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호기심을 잃지 말라. 소중한 대학시절 공부 뿐 아니라 연애도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은사님들께 받았던 관심과 애정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RESEARCH NEWS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 A Ratiometric Two-Photon Probe for Quantitative Imaging of Mitochondrial pH Values

김환명 교수팀,  
신개념 차세대 영상소재 개발

화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환명(화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팀의 논문이 영국왕립학회에서 발행하는 <케미컬 사이언스(CHEMICAL SCIENCE)> 온라인판에 4월7일 게재됐다.

허철호(박사과정), 박상준(석박사 통합과정), Avik Sarkar(박사후과정) 학생이 제 1저자로 함께 참여

해당 논문은 '생체 내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pH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이광자 형광프로브(A Ratiometric Two-Photon Probe for Quantitative Imaging of Mitochondrial pH Values)' 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도약연구사업과 중점연구소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광자 형광프로브'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화학종을 실시간 · 정량적으로 검출해 정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영상소재이다. 기존의 형광프로브는 에너지가 높은 단파장(자외선-가시광선)의 빛을 여기원으로 사용해 생체 시료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빛이 깊이 투과되지 않아 조직의 표면만을 관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이광자 형광프로브는 에너지가 낮고 투과력이 좋은 적외선 영역의 빛을 사용해 살아있는 조직의 내부를 세포이하 수준의 3차원 고화질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Enhancing Low-Bias Performance of Hematite Photoanodes for Solar Water Splitting

조인선 교수팀,  
저비용 고성능 나노 도핑 기술 개발

신소재공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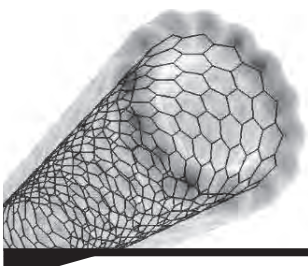
조인선(신소재공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팀이 저비용 고성능의 나노소재 도핑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통해 진행

관련 논문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2월18일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이번 연구는 조인선 교수와 미국 스탠퍼드대 기계공학과 사울린 쟁(Xiaolin Zheng) 교수, 한현수 박사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조 교수 팀은 화염을 이용한 새로운 나노소재 도핑기술을 개발, 이를 이용해 대표적 저가 광전극 소재인 산화철 고품질 소재의 태양광-수소 전환효율을 두 배 이상 향상시켰다. 도핑이란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 반도체의 전기 · 광학적 성질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팀은 간단한 저온 용액 공정으로 투명 전극 위에 나노막대 모양의 산화철을 성장시키고, 여기에 티타늄이 포함된 도핑 전구체를 균일하게 도포한 뒤, 고온의 화염 속에서 급속 열처리했다. 이를 통해 나노 막대가 변형되거나 특성이 달라지는 일이 없이 고농도 티타늄을 균일하게 도핑,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후 용액 식각 공정을 통해 불활성막을 제거한 후 옥시수산화철을 보조 촉매로 코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화철 광전극 내부의 전하 이동성 및 표면 특성이 동시에 향상되어 산화철 기반 광전기 화학 소자의 효율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향상됐다. 이에 태양전지나 배터리 등 에너지 기술 분야의 핵심인 나노소재 개발 및 고기능화 기반 기술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ZNF224, Krüppel like zinc finger protein, induces cell growth and apoptosis-resistance by down-regulation of p21 and p53 via miR-663a

박상규 교수팀,  
유방암 세포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 발견

약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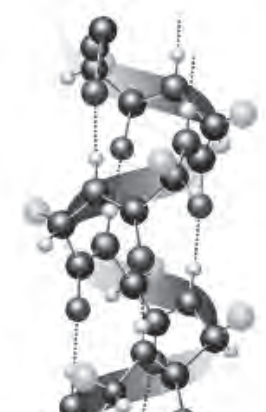


박상규(약학과)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사멸을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ZNF224)을 발견했다. 새로운 단백질과 유방암 세포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이번 연구 성과는 유방암 치료와 관련 의약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암 분야 저명 학술지인 <온코타겟(Oncotarget)> 4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논문 제목은 'ZNF224 · miR-663a를 통한 p21 · p53의 하향 조절과 세포 성장 증가 및 사멸 저항성(ZNF224, Krüppel like zinc finger protein, induces cell growth and apoptosis-resistance by down-regulation of p21 and p53 via miR-663a)'

박상규 교수팀은 유방암 세포에서 p53과 p21의 발현을 조절하는 새로운 전사인자 ZNF224를 발굴했다. 전사인자는 특정 유전자의 DNA에 결합해 이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을 말한다. p53과 p21은 세포 주기 및 사멸을 조절하는 단백질로 암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팀은 ZNF224가 세포 내에서 다른 유전자를 조절하는 마이크로RNA의 한 종류인 miR-663a의 발현을 증가시켜 p53과 p21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ZNF224이 과발현된 유방암 세포주가 항암제의 일종인 CPT에 저항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그동안 ZNF224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적 모델에 집중되어 왔으며, ZNF224를 분자적 수준에서 분석해 유방암 세포 증식과의 관련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ZNF224와 miR-663a를 유방암 진단용 바이오마커 및 암 치료용 타겟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PEOPLE

##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아주대 방문



크리스틴 클레리시(Christine Clérici)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겸 파리 7 대학 총장과 일행이 5월9일 아주대를 방문했다.

크리스틴클레리시회장을 비롯해 마크멜카(Marc Melka) 프랑스교육부 아시아·아프리카담당국장, 필립코도네(Philippe Codognot)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일본 책임소장, 얀 모로(Yann Moreau) 주한프랑스대사관 과학·대학협력 담당관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 이후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과학 분야와 대학 간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동연 총장은 클레리시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프랑스 대학들과 아주대학교 간의 정보통신 및 의학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클레리시 회장 일행은 정보통신대학과 의과대학을 차례로 방문해 각 대학의 현황을 소개받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PEOPLE

##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변화와 혁신 특강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변화와 혁신, 금융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학생들과 교직원, KEB하나은행 지점장들을 비롯한 경기도내 주요 금융기관 간부들까지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진웅섭 원장이 김동연 총장과 공직생활 중 맺은 인연으로 먼저 제의를 하면서 성사됐다.

진웅섭 원장은 ▲금융의 의미와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 ▲금융 플랫폼의 변화와 혁신적 금융기술의 출현 ▲개인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이후에는 참가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진웅섭 원장은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장, 금융위원회 대변인·자본시장국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EVENT

## 통일교육위원 경기남부협의회 발대식



아주대 김동연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통일교육위원 경기남부협의회 발대식 및 워크숍이 5월12일 아주대 종합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은 ▲경기남부 통일교육위원 4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김동연 총장 환영사 ▲정승훈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아주대는 지난 4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실시한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공모'에서 경기남부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김동연 총장이 통일교육위원 남부협의회 회장으로서는 통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부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경기도 외교정책 특별자문관이자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있는 차두현 박사가 <한국사회에서 통일교육의 과제: 진영극복의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EVENT

## '도전을 나누다, 경험을 나누다' 파란학기 중간교류회



파란학기 참가자들을 위한 파란학기 중간교류회 - 도전을 나누다, 경험을 나누다 행사가 5월12일 열렸다.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1부 행사에서는 파란학기 참여 학생들의 활동 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파란학기 - 아주도전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립 학생이 이날 사회를 맡았다. 활동 내용 발표에는 8개 팀의 대표 학생들이 나섰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도전과제를 소개하고 진행해온 과정과 애로 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자유롭게 자신들의 소감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부 행사는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파란학기 파트너 기업인 하림과 카스가 제공한 맥주와 치킨을 나눠 먹으며 교류를 이어갔다. 김동연 총장은 2부 인사말을 통해 "파란학기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규정한 틀을 거부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모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더 많은 아주대 학생들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EOPLE

## 류길재 前 통일부장관, <경기통일포럼> 특강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경기남부통일교육센터·아주대학교가 주최한 <경기통일포럼>에서 '그래도 통일이야'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100여명의 학생, 교직원이 참석했다. 특강은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류길재 전 장관은 "통일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되찾고,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한 길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 매력적인 나라가 되는 일"이라며 "통일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통일포럼>은 경기남부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가 격월로 주최하는 저명인사 특강이다. 아주대학교는 최근 통일부 주관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경기남부 지역 통일 교육 거점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 이범진 약대 학장, 과학기술진흥 훈장받아



약학대학 이범진 학장이 과학기술진흥 훈장 회공·생명과학분야 도약장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진흥 훈장은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이를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여한다.

과학기술진흥 포상 대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4월21일 오전 서울 홍릉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관에서 열린 '제49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이범진 학장은 고효율의 개량신약과 우수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공익적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진흥 훈장을 받게 됐다. 이 학장은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6년제 약학대학 교육 체계 확립과 인재 육성에 기여한 바 있다.

EVENT

## 프로야구 kt위즈, 홈경기에 아주가족 초청



수원 연고의 신생 프로야구단 kt위즈가 티처스 데이 시리즈(Teacher's day Series)에 아주대 구성원들을 초대했다. 김동연 총장과 이경진 총학생회장은 시구·시타자로 나섰다.

kt위즈는 5월18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kt위즈 파크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홈경기에 아주대 학생과 교직원, 아주대의료원 교직원 700여명을 초청했다. 경기장에 앞서 장내 전광판에서 아주대 홍보 동영상 상영됐고 장내 안내원의 김동연 총장 인터뷰도 진행됐다. 이날 경기장에서는 아주대를 상징하는 응원막대가 경기 분위기를 돋웠고, 아주대 응원단 선수가 단상에 올라 응원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동연 총장은 장내 인터뷰를 통해 "아주대학교는 도전과 배려,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쾌한 반란'을 추진하고 있다"며 "kt위즈도 경기의 승리 뿐 아니라 수원 시민들에게 재미와 기쁨을 주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달라"고 전했다.

DONATION

## 김병희 회성&H 회장, '유쾌한 반란' 기금 1억기탁



김병희 회성&H 회장이 '유쾌한 반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아주 유쾌한 반란 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회성&H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전문기업으로 중국·동남아 지역 수출을 주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김 총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상업학교에 다니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지수성기한 공통점이 있다. 김 총장이 공직에 이어 아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쾌한 반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 아주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아주대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 유쾌한 반란 기금은 유쾌한 반란을 주창한 김동연 총장이 취임 후 만든 발전기금의 일종으로 아주대가 추구하는 도전, 배려, 상생의 가치가 담긴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조성,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유쾌한 반란 사업으로는 AFTER YOU 프로그램, 파란학기제, 아주희망SOS, 글로벌 인턴십 등이 있다.

DONATION

## 한마음장학회, AFTER YOU·SOS 프로그램 장학금 기부



공공정책대학원 동문과 교직원이 주축이 된 '한마음장학회'가 장학금 3572만 원을 아주대에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AFTER YOU 프로그램"에 3000만 원, 아주희망SOS 기금에 572만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한마음장학회를 대표해 김은곤 부동산최고위 총동문회장, 차병수 석사 원우회장, 김형례 석사총동문회 사무총장, 진상준 부동산최고위 원우회장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김동연 총장과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장, 이준섭 기획처장과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진이 자리했다.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과 교직원이 주축이 된 한마음장학회는 지난 2010년 출범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주대 학부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AFTER YOU·SOS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LINC사업단, 연차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이주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2015년 연차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 올해 배정받은 사업비는 48억원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육성사업' 4차년도(2015) 연차평가 결과 이주대가 전국단위 기술혁신형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사업추진 성과와 사업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주대는 지난 2014년 LINC사업에 신규 진입한 2년차 대학으로서 기존 4년차사업단들과 겨뤄 기술혁신형 분야 참여 15개 대학 중 작년에 이어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는 기본사업비와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PEOPLE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총장을 비롯한 이주대학교 관계자들이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 World-OKTA) '제18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했다. 월드옥타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들의 경제·무역 단체로 이주대학교와 긴밀히 교류·협력하고 있다. 이주대관계자들은 월드옥타박기출회장, 김기현울산시장등과 상호협력·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옥타는 그동안 이주대와 학생 인턴십, 글로벌 스타트업 이카데미 공동 운영 등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최근에는 월드옥타 회원사 20개 기업에서 이주대 학생 30여명을 인턴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 기업은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루마니아, 헝가리), 동남아(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총장은 대회 기간 중 열린 <차세대 포럼>에서 '유패한 반란 시너2를 주제로 강의했다.

PEOPLE

박만규 교수, 전국 사립대 인문대학장 협의회 초대 회장에



박만규 인문대학 학장(불어불문학과 교수)이 '전국 사립 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에는 이주대를 비롯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조선대, 동아대, 원광대, 상지대, 배재대 등 전국 42개 대학이 참여한다. 박만규 학장은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제도 및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산업계의 인문대학에 대한 인식 변화 방안 모색, 인문대학 교육 및 연구의 개선 방향, 각 인문대학의 학내 입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초대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DONATION

대우장학재단, 단과대 수석 38명에게 전액장학



2016학년도 대우장학 수여식이 3월31일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우장학은 1993년부터 23년째 단과대학 학년별 수석에게 지급되어왔다. 올해에는 총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대우장학재단 이사진, 각대학 학장과 처장 및 관계자 그리고 장학생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재형 학생처장의 대우장학 현황보고, 대우장학 영상 시청, 장학증서 전달, 장학생 대표 선서와 감사의 글 낭독 그리고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우장학재단 이사들의 격려인사도 이어졌다. 추호석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놓으면 흥한다는 말처럼 장학생들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만족하지 않고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DONATION

아경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26명에 장학금



아경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4월18일 울곡관에서 열렸다. 아경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총 26명의 학생들에게 6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경장학재단 장학생들과 김형균 이사장을 비롯한 아경장학재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총장과 각 대학 학장과 처장 단도 함께 자리했다. 행사는 김동기 아경장학재단 사무국장의 경과보고로 시작해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 대표 감사의 글 낭독, 김형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김동연 총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김형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모든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기부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앞으로 아경장학재단의 소중한 기부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2007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이주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할 일을 할 뿐' 교직원 마이크



김승권 팀장 / 대학교육혁신원

1993년 이주대학교에 입사했다. 구매관리팀, 홍보팀, 기획팀, 비서실에 근무했고 대학교육혁신원 팀장으로서 이주대가 도입한 피관학기제-이주도전학기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더 많다" "불가능 할 것 같은 일을 해내고 있다" "스파르타! 불가능은 없다! 일단 부딪혀라!"

피관학기제 중간교류회에서 학생들이 언급한 말이다. 참으로 부럽다. 대학생 시절부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주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피관학기제는 출범 그 자체가 도전이었다. 그만큼 생소한 개념의 학사제도였고, 여러 우려도 많았다. 함께 준비했던 실무자와 관련 팀원, 팀장들의 수고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피관학기제가 진행되며,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니 '그동안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이 커진다. 기성세대가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은 삶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고픈 일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다. 그동안 이주대는 대학 사회의 큰 물줄기를 선도해 왔다. 학부제 실시와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학사 행정 원스톱 서비스 등 - 당시에는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돌아켜 보니 그 모든 것이 대학 사회의 큰 물줄기를 비춘 선도적 조치였다. 피관학기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에게는 남다른 일을 앞서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에 더해 앞으로는, 우리가 공을 들여 준비하는 하나 하나의 일들이 쌓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개개인 스스로가 그려 볼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 구성원 각자가 미래의 자신에 대해 계획하고 꿈꾸며 비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그려본다. 마치 피관학기제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EVENT

건축학과 30주년 기념행사



이주대학교 건축학과가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건축학과 3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 데이'는 4월29~30일 이틀 동안 열렸다. 29일 열린 건축학과 30주년 기념행사에는 건축학과 학생 250여명과 박동서 명예교수를 비롯한 교수진, 졸업생이 함께 자리했다. 이상덕 공과대학 학장의 축사, 교수진과 졸업생의 회고사, 발전기금 전달식,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행사는 건축인 모두가 건축학과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학과 발전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30일 열린 홈커밍데이에는 100여명의 졸업생과 교수진, 재학생이 참석했다. 본 행사 이후에는 학생회관 광장에서 만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건축학과 총동문회가 출범, 조원규 동문(건축 87학번)이 총동문회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건축학과 30주년을 기념해 교수진과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부도 이어졌다. 건축학과 동문회에서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고, 박동서 명예교수가 매년 1000만원씩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제해성 교수는 1000만원 기부를 약정했다. 그밖의 소액 기부도 줄을 이었다.

EVENT

고전 브라운백 렉처 시작



2016년 '고전 브라운백 렉처'가 5월3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첫 강연은 러시아 리얼리즘의 대가 손꼽히는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를 주제로 이병훈(다산학부대학) 교수가 약 1시간동안 진행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 대문호인 고골을 간단히 소개한 뒤, 외투 속 주인공 이카키의 심리적 갈등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 등을 짚었다. 고전 브라운백 렉처는 학기 중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50분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강연시간에 맞춰 성호관 303호로 방문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도시락이 제공된다. 1학기 강의는 6월7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2학기 강의는 9월27일부터 시작한다.

# Thank Donor

## 세상 떠난 외동딸 뜻 따라 3억 기부한 김종권·서호영 부부

딸은 참 씩씩하고 당찬 아가씨였다.

오랜 유학 생활을 끝내고 귀국해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디저트 편집샵을 열고 케이크와 쿠키 등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27살의 젊은 사업가였다. 디저트가 맛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이 커지고 있던 차, 몸에 이상을 느낀 딸은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받은 림프암 확진 판정. 힘겨운 투병생활이었지만 딸은 한 번도 고통

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의연하고 담

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를 오히려 보듬었다. 그리고 11개월 후, 고요하게 잠들 듯 세상을 떠났다. 딸의 나이 스물아홉,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일은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해준 딸이었다.

부부는 '아프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딸의 뜻을 기려 2015년 아주대학교에 3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이 기금은 <김수정 장학금>으로 명명되어 매 학기 10명의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다. 부부의 뜻에 따라 림프암 전공을 희망하는 의과대학 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왔다. 그리고 이 학생들과의 만남이 부부에게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다. 김수정 씨의 모친 서호영 여사는 "학생들과 꾸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며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커진다"고 말했다. 외동딸을 잃고



서 부부는 세상이 끝난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딸을 보낸 지 이제 1년 반, 부부를 일어서게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소명의식이었다.

"이전에는 기부를 모르고 살았다. 할 수도 있었지만 바빠 돌아가는 생활에 파묻혀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나눔'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절실히 느낀다.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기부'가 아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기

부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걸로 믿는다. 우리

부부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이다.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슬프다가 보다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하늘에 있는 딸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다. 딸아, 우리 잘 하고 있지?"

김수정 씨의 부친인 김종권 씨는 아주대학교 1회 졸업생이다. 1973년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그에게 모교와 후배들의 의미는 각별하다.

"1973년 280명이 입학해 96명이 제1회로 졸업했다. 우리는 첫 번째 졸업생이라는 책임감이 컸다. 우리가 잘 해나가지 못 하면 따라올 후배들의 길이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아주대가 그동안 많이 성장해왔고, 기업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다. 하지만 아직 정치·경제·법조계 등으로의 진출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우리 후배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④



아주대 전자공학과 1회 졸업생 김종권·서호영 부부

Donors

사회인사의 아주사랑...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Table of donors with columns: Ajour You, 이름, 발원처, and a large list of names.



2016 SUMMER

CREDITS

PUBLISHER

president

김동연

CHIEF EDITOR

brand strategy dept. moc.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visiting professor

남경호

EDITORS

brand strategy dept.

이슬 심격석

PHOTOGRAPHER

brand strategy dept. digital media\_senior free-lancer

정우준 강민석 이상숙

ART

brand strategy dept. kkp and partners co., ltd.

권지영 한혜영 이옥경 심민경

PROCEEDING ASST.

ajou univ. culture and contents\_senior digital media\_junior

정혜진 김태우

PRINT MANAGER

alaska

장준우 지환성

SUPERVISOR

brand strategy dept.

박승하

PAPER Greenlight

그린라이트는 재생 원료를 배합하여 탄생한 친환경종이입니다.



Copyright © 2016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제를 환영합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 031-219-2114

20163-20164 (가나다 순)



어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AU**  
1973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시작합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계간 소식지 2016 여름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6 06 07 08 RENEWAL Vol.4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6(4349) 여름호 전 '아주대학교사람들'과 함께 동권 16호

※자연을 생각하여 친환경 용지로 제작하였습니다